

The image is a book cover for 'World of Warcraft: The War Within'. At the top center, the title 'WORLD OF WARCRAFT' is written in a stylized, glowing font, with 'THE WAR WITHIN' below it in a smaller, similar font. The background features a stone wall with battlements. On the battlements, several soldiers in red and white armor are visible. In the foreground, a character with white hair, wearing green and blue armor with gold accents and a blue cape, is shown from the side, looking towards the wall. The overall scene is set against a bright, hazy sky.

WORLD OF
WARCRAFT
THE WAR WITHIN

중심지

작가: ADAM CHRISTOPHER

2

과거의 메아리

스토리
ADAM CHRISTOPHER

일러스트
BRUSH SAUCE STUDIO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KEITH RILEY CO, AARON OLSON,
ABIGAIL MANUEL,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TAKAYUKI SHIMBO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누구든 간에 저자와 같이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경비병이 말했다.

제이나와 스랄은 스트롬가드 요새 성문 앞에 서 있었다. 몇 년 만에 방문하는 요새였지만, 기억을 되짚어 봐도 입구가 이토록 위압적으로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성문에는 7군단이 아닌 스트롬가드 정규군에 소속된 6명의 경비병이 있었고, 입구 양옆의 탑 위에는 석궁으로 무장한 6명의 경비병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나는 평정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요새로 오는 데 긴 시간이 걸렸고, 독이 스랄의 기운을 좀먹어 가는 게 시시각각으로 보였던 까닭이었다. 성문 앞에 서 있는 지금도 스랄은 제이나에게 힘겹게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마란 트롤베인 섭정을 만나러 왔어요!” 제이나는 목소리를 높여 탑 위의 경비병들을 울려다보았다. 저들 중 한 명이라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길 기원하면서.

“전 쿨 티라스 연합 왕국의 제독 제이나 프라우드무어입니다. 이쪽은 호드 의회의 오크 대표 스랄입니다. 보다시피 중상을 입었어요.” 우리 둘 다 다나스 트롤베인의 안내를 받아 평화 사절 자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섭정과 긴급히 논할 사안이

있습니다. 당장 성문을 열어 주십시오!”

앞에 있던 경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했다.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제이나가 이를 악물고 지팡이에 마력을 집중하자,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허락을 요청한 건 어디까지나 체면치레……”

그때 스랄의 크고 부드러운 손이 제이나 자신의 팔뚝에 내려앉는 감각이 전해졌다. “다나스의 전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소, 제이나.”

제이나가 반박하려 했지만 스랄은 몸을 떼어내며 곧게 섰다. “우린 할 일이 있지 않소. 지금 난 짐만 되고 있지.” 그가 경비병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를 범하지 마시오. 제독은 그대들의 섭정을 만나러 온 거요. 어서 들여보내 주시오.”

경비병은 꼼짝도 안 했지만 그 뒤로 움직임이 있었다. 제이나가 위쪽을 힐끔 보니 성벽에 있던 병사가 한 명 줄어든 것이 보였다. 잠시 후 무거운 쇠사슬이 철거덕거리는 소리와 나무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제이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쥔 손에서 힘을 풀었다. 그나마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긴 하구나. 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자 제이나는 스랄을 데리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가시오.”

제이나가 얼굴을 찡그렸다. “스랄, 치료를 받아야 해요. 어떻게 당신을 두고 가요.”

“내가 당신을 두고 가는 거라오. 치료를 받긴 할 거요. 여기 말고. 망치 주둔지로 가리다. 지금쯤이면 아그라가 게야라를 만났을 거요.” 그가 열린 성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린 섭정과 얘기하십시오. 임무를 잊지 마시오.”

제이나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렸다. 탑 위에 있던 경비병, 계급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동료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 앞에 와 있었다.

“따라오십시오.” 경비병 말했다.



제이나는 스트롬가드 요새에 들어서자마자 도시 전체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확실히 부산했다. 무엇보다 7군단 예비군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군대의 주축을 이루는 병사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일반 주민들보다도 훨씬 많아 보였다. 이렇게 부산한데도 스트롬가드는 마치 큰 폭풍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제이나가 반박하려 했지만
스랄은 몸을 떼어내며 곧게
섰다. "우린 할 일이 있지
않소. 지금 난 짐만 되고
있지." 그가 경비병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를
범하지 마시오. 제독은
그대들의 섭정을 만나러
온 거요. 어서 들여보내
주시오."

상점이나 여관, 주택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이고 판자로 막아놓기까지 해 도시 자체의 기능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일반 시민들은 제이나 일행이 지나가는 모습을 멈춰서 쳐다보았다.

다들 두려움에 질린 표정이었다. 성벽 밖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반응이긴 하나, 제이나는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밖에 없었다. 제이나를 마주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잡아끌며 뿔뿔이 흩어졌다. 문과 창문을 쿵 소리 내며 닫는 것이 꼭 자신을 적으로 취급하는 듯했다.

바다의 딸을 조심하라.

불행한 기억이 제이나의 머릿속에 불쑥 떠올랐다. 바로 무시했지만 기분이 나아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머잖아 일행은 성채에 도착했고, 이내 문이 열렸다. 두 명의 건장한 병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로 우아하지만 방호력은 떨어지는 갑옷을 걸친 작은 여성이 등장했다. 대략 40세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제이나가 살아오며 스트롬가드가 마주한 수많은 위기를 알 만한 나이. 여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닫힌 입매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제독님.” 마란 트롤베인이 다가왔다. 마란은 단호하게 뒷짐을 지고 있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아군이 부족하던 차였습니다. 제독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이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여인을 가늠해 보았다. “예, 섭정님.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먼 길을 왔죠. 다나스 말로는.....”

“대접해 드릴 건 별로 없지만” 마란이 제이나의 말허리를 끊었다. “아라소르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 이쪽으로 드시지요.”

섭정은 몸을 돌려 성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이나는 지팡이를 쥐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마란이 제이나를 이끌고 성채의 넓은 복도를 지나면서 말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느라 중사단을 들들 뺐거든요.”

제이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듣던 중 반가운 얘기네요. 자문위원들을 소집할까요, 아니면 먼저 조용히 얘기부터 나눌까요?”

“다른 이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대화부터 하죠.” 마란의 손짓에 경비병들이 서재 문을 열어주었다.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해요.” 제이나가 마란의 인도를 받아 폭신한 벨벳 의자에 앉았다. “가장 급한 안건부터 말씀드리죠. 전 호드 사절과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7군단과 코르크론의 교전에 휘말려 부상을 입었어요. 경비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망치 주둔지로 떠났죠. 우선 그를 다시 불러들여 마그하르와의 평화 협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제이나가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달라란이.....”

“달라란이요?” 마란이 끼어들었다. 마란이 자기가 제대로 들은 게 맞냐는 듯 제이나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섭정은 제이나의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책상 뒤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았다. 마란이 양피지 더미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았다. “제독님, 전쟁을 많이 겪으신 건 압니다. 쿨 티라스를 얼마나 오래 다스리셨는지도 알아요.” 마란이 책상 위의 종이를 살살이 뒤져 무언가를 찾아냈다. “하지만 왕국이 겨울을 나는 데 곡물이 몇 가마나 필요하지 아십니까?” 마란이 또 다른 양피지를 들어 올렸다. “스통송 계곡의 밭을 갈아주는 말은 몇 마리나 되죠?” 또 다른 종이가 들어 올려졌다. “철광석 50킬로그램당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스트롬가드는 수년 동안 전투를 치르며 너무나 많은 걸 잃었고, 백성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제이나는 뜨끔했다. 마란에게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작은 왕국보다 더 큰 위협이 될, 또 다른 싸움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크와 인간 모두 함께 맞서야 하는 싸움이죠. 서로 다투면 우리의 단결된 힘이 약해질 뿐이에요. 7군단과 코르크론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럼 스트롬가드와 마그하르를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평화?” 마란이 조용히 물었다. “평화라고 하셨나요? 제 백성들은 오늘 무분별한 폭력에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이나는 여인이 분노로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계속 밀고 나가야 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숙여 긍정을 표했다.

마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요.” 마란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우리의 국경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비군을 이끌고 또 다른 대모험을 떠나려 온 거였네요. 맞죠? 또 적이 나타난 거고, 다시 영광스러운 전쟁이 일어날 테고. 영웅들이 우리를

마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책상을 바라보았다. “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요.”
마란이 고개를 들었다. “
당신은 우리의 국경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비군을
이끌고 또 다른 대모험을
떠나러 온 거였네요. 맞죠?
또 적이 나타난 거고. 다시
영광스러운 전쟁이 일어날
테고. 영웅들이 우리를
구원하겠죠. 뭐 그런 것들.”

구원하겠죠. 뭐 그런 것들.” 마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이나는 얼굴을 붉히고 울분에 차 말을 토해내는 마란의 모습에 가슴이 쿵광거렸다.

“그리고 예비군이 사라지면, 오크들은 그 기회를 파고들겠죠. 스트롬가드를 무너뜨리고 고원을 차지할 겁니다.”

제이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마란은 웃음을 뱉어냈다. “하긴, 당신에게 이런 요구를 듣는 것도 새삼 놀랄 일은 아니네요. 얼라이언스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대의를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더 조일 것도 없어요. 얼라이언스가 다음 전장으로 달려나갈 동안 말입니다. 전 스트롬가드의 편입니다. 제 백성이예요. 저들의 삶은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마란, 제발...”

“섭정입니다. 호칭을 바로 해주십시오.” 왕국의 동맹인 만큼 숙소를 내어드리겠지만, 새벽에 떠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나는 문객 숙소 창문 너머로 말을 탄 급사가 스톰윈드로 전할 서신을 갖고 스트롬가드 성문을 향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이나는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기를 기도했다. 다나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다. 마란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서둘러 돌아오라고 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도 제이나는 다나스를 다시 불러들이는 게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내심 알고 있었다.

섭정과와 대면 이후 제이나는 쫓기듯 내보내져 호위를 따라 숙소로 끌려왔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긴 하루였다. 제이나는 나중에 좀 더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마란에게 생각을 정리할 틈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직접 상황을 파악할 작정이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시민들과 7군단 모두 대놓고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더라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이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다른 건 몰라도 혼자 생각할 여유가 생겨 좋긴 했다.

염려는 났으나, 기실 제이나는 마란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지언정. 스트롬가드는 예로부터 주변에 포진한 적대 세력에게 늘 위협을 받았고, 4차 대전쟁에는 핵심 전선이 되기도 했다. 제이나는 위기에 처한 왕국의 운영을

말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온 사방에 적이 도사리고 있고, 가족의 가장 큰 동맹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까지도. 마란은 백성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한 일을 행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이끌어줄 이가 절실히 보였다. 삼촌의 인도가 말이다. 하지만 그건 제이나의 바람일 뿐, 다나스가 스트룰가드에 돌아왔다간 긴장감이 가라앉기는커녕 알력 다툼이 시작될 확률이 더 높았다.

결국 그녀는 신중한 관점에서 편지를 썼다. 그렇지만 도시를 둘러본 제이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절실히 깨닫고 말했다. 다나스가 올 수는 있다.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지. 지금 이곳에 있는 건 제이나였다.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법을 찾는 건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스랄은 아라시 고원을 가로지르며 오직 걸음 수를 세는 데만 집중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지만 걸음걸이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본인도 알고 있었다. 망치 주둔지에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다는 사실도. 숨을 쉴 때마다 독에 기운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도. 왼팔은 이미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독이 상처를 기점으로 시리도록 차갑게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심장이 뛸 때마다 고통이 뭉근히 퍼졌다.

스랄은 살짝 인상을 구겼다. 그래도 길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망치 주둔지라면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다. 아라시 고원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지역이었다. 스랄은 걸으면서 3차 대전쟁이 일어나기 전, 오그림 돔해머와 함께 포로 수용소를 해방하러 왔을 때를 떠올렸다. 인간들이 오크를 짓밟고 그 영혼에 박탈감과 괴로움, 고통, 비탄을 새겼던 구덩이가 저 언덕 바로 아래에 있었다. 오늘날 망치 주둔지가 자리한 바로 그곳에 말이다.

스랄이 그 길을 어찌 잊겠는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스랄이 눈을 감았다. 귀에서 피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다. 눈꺼풀 뒤의 어두운 세상이 팽글팽글 돌아가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때였다. 어깨가 밀리는 감촉. 강인하면서도 친근한 손길이 그를 이끌어 주고 있었다. 그의 동지들이요, 전사들이었다. 스랄은 곳곳하게 나아갔다. 수용소로 가게.

아라시 고원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지역이었다. 스랄은
걸으면서 3차 대전쟁이
일어나기 전, 오그림
둠해머와 함께 포로
수용소를 해방하러 왔을
때를 떠올렸다. 인간들이
오크를 짓밟고 그 영혼에
박탈감과 괴로움, 고통,
비탄을 새겼던 구덩이가 저
언덕 바로 아래에 있었다.
오늘날 망치 주둔지가
자리한 바로 그곳에
말이다.

동포들을 해방해 주게나.

예, 오그림 님. 예, 알겠습니다!

스칼이 눈을 떴을 때, 저 앞이 보였다. 상상이 아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저 앞에 있는 건 오그림 님이 아닌가? 지금 막 저 앞 오르막에서 사라졌는데? 그리고 스칼의 옆에는 함께 진격할 채비를 마친 부하들이 있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또 한걸음. 다시 또 한걸음.

하나, 둘.

하나.

스칼은 쓰러지고 말았다.. 벌써 밤인가? 날이 그렇게 어두워졌나? 그는 눈을 깜빡이며 아직 말을 듣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거렸다. 그러나 시야는 어두웠고, 눈앞에서 검은 불꽃이 춤을 쳤다.

주위로 형체가 보였다. 오크인가? 아니, 인간이다! 기회를 노리는 건가!

스칼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쥐었다. 있지도 않은 도끼의 손잡이를 감싸듯이. 오그림에게 복병이 나타났다고 외쳤지만,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스칼의 시야가 희미해지자 인간들이 달려들어 포위했다. 스칼은 친구를 위해, 호드를 위해 울부짖었다.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바닥이 보이질 않는 차디찬 바다가 되어 있었다. 스칼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침잠했다.

작가 소개

Adam Christopher는 *Star Wars: Shadow of the Sith* 및 *Stranger Things: Darkness on the Edge of Town*을 집필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CBS TV 쇼 *Elementary*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Dishonored*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의 타이인 소설을 맡기도 했다. Adam Christopher는 *Archie Comics*의 21세기형 슈퍼히어로 *The Shield*의 공동 제작자이며, *Image Comics* 소속 Greg Rucka와 Michael Lark의 *Lazarus* 시리즈 및 *Big Finish*의 *Doctor Who* 세계관 각본을 맡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tar W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기념일 앤솔로지 시리즈에 기고자로 참여했으며, IDW의 전연령판 *Star Wars Adventures* 만화 각본을 담당하였다. Adam의 원작 소설로는 *Made to Kill*과 *The Burning Dark*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데뷔작 *Empire State*는 *SciFi Now*와 *Financial Times*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